

3월 주요 略史	
1일 : 3.1 독립만세운동(1919년)	15일 : 3.15 부정선거 마산학생의거(1900년)
1일 : 부산-신의주 북선철도 준공(1945년)	17일 : 중국 상해인사정부 선포(1919년)
3일 : 제5공화국 제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1981년)	17일 : 대한민국 연호 사용(1919년)
4일 : 뉴델리 제1회 아시아체육대회(1952년)	21일 : 동학혁명(1894년)
9일 : 강원도 청성 함백산 개통(1957년)	22일 : 윤보선 대통령 사임(1962년)
15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중앙선 개통(1941년)	22일 : 삼일기도로 개통(1902년)
15일 : 제대 대통령 선거(1980)	24일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년)
	26일 : 안중근 의사 어순 감옥 순국(1910년)
	29일 :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 이용섭 광주시장, 청계천 5.18왜곡 규탄 참석

이 시장, 검찰 지만원·김순례·이종명 엄정수사 촉구



이용섭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은 김윤태·김순례를 즉각 제명 조치하고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는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김진태 김순례·이종명을 하루 빨리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라"며, "국회는 5.18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만행의 중심에 서있는 지만원과 세 사람의 국회의원 의 고소·고발 사건을 즉각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하고, "법원은 5.18 민주역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조속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임재상 대표기자

## 전남도, '혁신도시 시즌2' 준비 본격화

한전KDN, 공공기관장협의회 위원 24명 참석 개최



전남도는 지난달 21일 한전KDN에서 혁신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상생 협의체인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김영록 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성철 한전KDN(주) 사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오승현 광주시 부교육감, 위광환 나주시시장, 김성운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본부장, 김범연 한전KPS(주) 사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과 관련해,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 양성, 에너지 중심의 새천년 혁신 거점 조성 등 40개 사업, 3조 9천793억원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의회 소속 기관장들에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계획에 목포시 등 15개 시·군이 발굴한 99개 2천515억 원 규모의 사업 반영 ▲ 지역 인재 채용 ▲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했다. (혁신도시지원단 286-8811)

/이민행 대표기자

##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서 의원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이 장관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중장기 대책 조속 수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민주당/영암·신안)은 2월 19일(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권오상 서울대학교 교수, 정학균 환경자연연구센터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형호 온난화대응연구소장(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속에서 앞으로 농업분야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각계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기후변화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류춘범 기자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아직은?

공동발전기금 조성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이 더 시급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시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돼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공동발전기

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혁신도시 주민 등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들이 빛가람혁신도시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인데 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 무안군의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 개최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규탄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달 15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제240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를 개최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강령구 회장(영광군의회)을 비롯한 각 시·군의회 의장과 김산 무안군수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은 환

영사에서 "광주 군사공항의 무안군으로의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무안군 뿐 아니라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시·군 의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망언들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무안·류춘범 기자

## 무안농협 마늘 2640kg 분실 관련 검찰 고발

김미남 조합장, 허위사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심각



김미남 조합장, 허위사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심각 마늘 16만7151kg 허위 보관증 주장도 '사실 무근' 전남지역본부 감사과, '손실 사유 없다' 감사 안해

무안농협의 '마늘 2640kg 분실'이라는 제하의 모 언론에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김미남 조합장이 허위경위서 관련해 검찰 목표지청에 지난 2월 26일 고소했다. 무안농협 000 직원이 "지난 2016년 6월 수매한 마늘 16만 9791kg을 유통센터에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마늘 보관량은 16만 7151kg으로, 2640kg이 분실됐지만, 조합이 두 차례의 재고조사에서 16만9791kg의 마늘이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관증을 작성했다"고 허위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농협 관계자는 "2640kg이 분실되었다면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당시 마늘 매입자

/이민행 대표기자



## 나광국 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최연소 도의원으로 전남 광역의원 중 유일 최우수상 선정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이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에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무안·류춘범 기자

나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 후 '전라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올해부터 전남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시대를 열며 교육복지 확대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안·류춘범 기자

## 신안군의회 '신안군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촉구

김혁성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2월 28일 제275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혁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김혁성 의원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발굴된 2만7천여 점의 신안해저유물들은 중국 송·원대 동아시아 대외교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유물로서 현재 발굴된 곳을 떠나 서울과 광주 그리고 목포에 분산되어 전시되고 있다"면서, "발굴현장을 떠난 신안해저유물이 제 자리를 찾아 그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안군해저유물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제가 노령산맥을 떠올리며 노령신문蘆嶺新聞을 창간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창간 11년째를 맞아 매끄럽지 못하고, 잘 다듬어지지 못하고, 다소 서툰 곳이 많은 그동안 써왔던 글을 모아 <和而不流 용화하되 탁류와 힘줄리지 않는다>라는 한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3월 22일은 不義(불의)를 보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다가 筆禍(필화)를 겪는 아픔이 있었던 제 인생에 있어 아주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며, 언론의 사명이 무참히 짓밟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는 3월 22일 2시 신문사 세평 공간에서 따뜻한 정담을 나누고자 하오니 방문하시면 책 한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축사 보내주신분**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  
· 강인규 나주시장 · 김산 무안군수 · 이윤행 함평군수 ·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